

외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표기법' 지도법 연구

- 알파벳 'a'의 표기법을 중심으로 -

김성환*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과 표기법 예외 사례
- III.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오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 IV. 검증방법 및 결과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관련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서 외국인 학습자가 유독 표기의 오류를 범하는 알파벳 'a'의 표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어의 외래어는 영어로부터 유입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스포츠, 패션, 자동차 관련 전문 용어에는 대부분이 영어에 기반을 둔 외래어들이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외래어지만 외국인 학습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예외 조항의 일률적이지 않는 복잡성 그리고 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법의 상관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가 알파벳 'a'에서 유독 많은 표기의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습 지도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알파벳 'a'의 표기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주제어 : 제2언어, 외래어, 표기법, 오류, 알파벳 ‘a’

I. 서론

한국사회의 언어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면 외래어 사용이 상당히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Global)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와 수긍할 수 있다. 본고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외래어 표기에서 잦은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특히 알파벳 ‘a’의 모음 표기에서 유독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에서 작성한 외래어의 경우에 알파벳 ‘a’의 경우 모음 ‘애’와 ‘에’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였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효과적인 학습 지도법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안에 관한 학습 지도법을 고안하려는 것이다. 현 한국사회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이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겠지만 외래어를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의 오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외국인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쉽게 발견된다. 이는 허유희(2008)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발생하는 외래어 오용이 발생하는 실태에 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법의 오용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제대로 된 여과 장치가 없다면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고는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외래어 학습 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학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¹⁾ 이는 김세용(2013)에서도 동일한 결과로서, 외국인 학습자가 어휘 학습을 하는 데에 대중매체의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학습도구로 보았다.

외국인 학습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국어 및 문화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도구로 활용한다.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방법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을 학습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대목이다.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관한 관심은 대중매체의 콘텐츠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한 한국에 관한 관심이 고스란히 대중매체의 콘텐츠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표기 오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외래어 표기란 외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상당히 혼돈되고 헷갈리는 영역이다. 허윤희(2008)은 외래어 표기법 세칙을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령별, 직업별에 따라서 외래어 표기의 오류가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이 일률적이지 않는 규정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렇다면 외국인 학습자도 외래어 표기란 혼돈되고 헷갈리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가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를 범하는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에 외래어 표기법의 학습과 그에 따른 지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고는 알파벳 'a'에 관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외래어 표기법의 복잡성과 학습 방법에서 발생한다고 보며 이 두 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학습 지도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현 한국어

1)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중매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4장에서 다룬다.

교육 현장에서 제2어로서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 교육에 관한 고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교수법 고안 및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과 표기법 예외 사례

1.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본고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을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과 이에 관련된 예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현재 외래어 표기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제1장, 표기의 원칙’, ‘제2장, 표기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본고는 ‘제1장, 표기의 원칙’과 ‘제2장, 표기일람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허윤희(2008)은 현재 외래어 표기법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의 표기의 원칙’에는 표기법의 원칙과 예외 규정으로 나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데미지’가 있다.²⁾ ‘데미지’는 영어 ‘damage’이며 국제음성기호로는 [dæmidʒ]다. 이를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표기의 원칙’과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따르면 ‘대미지’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제1장 제5항’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데미지’ 표기를 허용한다. 실제로 ‘데미지’는 1992년 프랑스에서

2) ‘데미지’는 외국어 표현에 해당하나 이는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의 구분 없이 모두 외래어로 표기한다.

제작된 영화 '데미지'에서 시작된 표기이다. 당시 영화 '데미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는 공식화된 영화 제목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지금의 '데미지'로 고착된 것이다.³⁾ 이는 대중매체로 비롯된 표기의 오용이 외래어 표기로 허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의 <표1>은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제2장, 표기 일람표' 일부이다. 이는 '국제음성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는 모든 언어의 발음을 기호로 나타내는 음성 기록 체계다. 이 기호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정확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외국인 학습자가 '국제음성기호(IPA)'를 숙지한다면 외국어 표기법에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성 제기 음호	한 글		국성 제기 음호	한 글	국성 제기 음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ㅂ, 프	j	이	i	이	
b	ㅃ	브	ɥ	위	y	위	
t	ㅌ	ㅈ, 트	w	오, 우	e	에	
d	ㄸ	드			ø	외	
k	ㅋ	기, 크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ㅃ	브			œ̃	왕	
θ	ㅈ	스			æ	애	

<표1> 표기 일람표 일부

<표1>은 '국제음성기호(IPA)'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표기법을 대칭한 대조표이다. <표1>의 '국제음성기호(IPA)'를 학습한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의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3) <https://namu.wiki/> 참조, 2020. 3. 09, 19시 05분 검색.

들어서 영어의 ‘apple’의 국제음성기호는 [æpl]이다. 이를 한국어의 자모로 표기하면 ‘애플’이 된다. 영어 ‘apple’의 음성기호 [æpl]과 한국어 표기 ‘애플’은 유사한 소리로 들린다. 물론,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법과 체계는 다르다. 그렇지만 영어의 [æ]와 한국어의 [애]는 유사한 소리로 들리므로 한국어 모음 ‘애’로 표기한다.⁴⁾ 이러한 국제음성기호와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위에 <표1>의 대조표를 기준으로 알파벳 ‘a’를 살펴보면 [æ] 발음은 한국어의 ‘애’로 표기하고 알파벳 ‘e’의 [e] 발음은 한국어의 ‘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데 이런 원칙을 숙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외국어인 영어 어휘의 철자(spelling)를 알아야 한다. 영어 어휘의 철자를 알지 못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을 숙지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둘째, 영어 어휘의 음성 기호를 숙지해야 한다. 가령, 영어 어휘를 학습하는 경우에 사전을 활용한다. 사전에는 해당 어휘를 찾아보면 음성 기호로 발음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음성 기호를 모른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셋째, 영어 어휘의 음성 기호를 한국어의 외래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영어 어휘와 음성 기호를 통해서 발음을 할 수 있더라도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모른다면 한국어로 올바르게 표기할 수 없다.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가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외래어 표기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숙지하는 것은

4)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다’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 목록치 않다. 또한 예(3)과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⁵⁾

- (1) ㉠ 'Santa Clause' [sæn tə klɔ: z] : 산타클로스
 ㉡ 'San francisco' [sæn frænsískou] : 샌프란시스코

(1㉠,㉡)은 음성 기호와 발음법이 동일한데 달리 표기한다. (1㉠)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샌타클로즈'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산타클로스'로 표기한다.⁶⁾ ((1㉡)의 'San francisco' 미국 지명은 '샌프란시스코'로 표기하며 이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한 맞는 표기다. (1㉠,㉡)은 발음 기호가 동일하지만 [산]과 [샌]으로 달리 표기한다. 이는 여러 요인⁷⁾으로 인해서 고착화되었다고 본다.⁸⁾

한국어의 외래어는 주로 특정한 전문 용어로서 많이 사용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 용어에서는 대부분이 외래어를 사용한다.

5) 알파벳 'a' 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제시한다.

6) 이 외에도 영어 철자와 발음이 동일하더라도 별개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디가드:bodyguard[ba'diɡa:rd] ↔ 바디라인:body-line[badi lain]', '복싱:boxing[báksɪŋ] ↔ 박스:box [báks]' 등이 있다.

7) 본고는 '로마자 표기법'과 '일본어 카타카나 표기법'과의 상관관계를 의심한다. 현 외래어는 표기일람표와 맞지 않는 외래어는 대부분이 로마자 표기법에 일치한다. 예를 들면 복싱(boxing), 바나나(banana), 라디오(radio), 펜팔(penpal), 알레르기(allergy), 스톱(stop) 등이 있다.

또한 19C 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및 일본식 외래어가 구어 사용에서 여전히 우리 언어생활에 잔재하고 있다. 일본식 외래어의 대표적 예로 김무림(2009)의 '고구마: '고코이모(孝行芋, こうこいも)', '오라이(オーライ): 영어 all right', '빠쿠(バック): back', '계란 후라이(フライ): 영어 fry' 등이 있다.

8)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의 규정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므로, 이는 '관용(慣用)'으로서 외래어 허용인 것이다.

(2) 스포츠 용어

- ㉠ 농구: 드리블, 덩크슛, 패스, 슛, 블로킹, 노골, 골인 등
- ㉡ 축구: 엽사이드, 드로우인, 골키퍼, 페널티킥, 센터링, 헤딩슛 등
- ㉢ 배구: 서브, 어택, 블로킹, 토스, 리베로, 백업, 네트, 백어택 등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스포츠 경기 내용에 관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는 스포츠 경기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으므로 한국어의 적합한 용어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외국어를 차용하는 편이 언어 사용의 경제성과 용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또한 국제 경기가 활발히 이뤄지는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언어 사용의 자정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한한 것이다.⁹⁾

2.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예외 사례

모든 언어는 생성과 소멸이 연속되는 선상에 놓여 있다. 이는 언어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문화를 엿볼 수 있다. 언어의 생성과 소멸 현상은 외래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따봉’을 꼽을 수 있다. ‘따봉’은 1989년 오렌지 주스 TV광고에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¹⁰⁾ 이때부터 ‘따봉’은 당시에 대중들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거의 소멸 상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외래어를 접하게 되는 수단으로는 대중매체가 큰 몫을 차지한다. TV, 라디

9) ‘RONALDO’ → 로날도 : 호날도 : 호나우도, ‘2006년 월드컵’ 중계에 공중파 방송사별 표기 혼란 사태.

10) <https://namu.wiki/w/> 참조, 2020. 3. 09, 23시 06분 검색.

외래어와 관련된 대중 매체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오, 인터넷, 휴대폰, 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외래어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외래어 중에는 외래어 표기법과 맞지 않는 외래어가 자주 등장한다.¹¹⁾

㉠	㉡
오렌지 : orange [ɔːrɪndʒ]	메시지 : message [mésɪdʒ]
라디오 : radio [réidiòu]	레이디 : lady [léidi]
알레르기 : allergy [æ̀lərdʒi]	액세서리 : accessory [æksésəri]
프랑스 : france [fræns]	프랭크 : frank [fræŋk]
샴푸 : shampoo [sʃæmpúː]	샌들 : sandal [sændl]
스웨그 : swag [swæɡ]	그램 : gram [græm]

<표2>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과 맞지 않는 예외 사례

위에 <표2㉠>은 외래어 표기법 규정과 맞지 않고 <표2㉡>은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기법이다. <표2㉠,㉡>의 국제음성기호(IPA)는 동일하지만 외래어 표기는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의 '제5항'에 의해서 <표2㉠>은 현 외래어로 통용된다. 그런데 '제2장, 표기 일람표'의 원칙에 따르면 틀린 표기법이다.¹²⁾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대중매체에서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외국인

11) 대중매체에서 사용된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 '런닝맨(running man), 알러지(allergy), 링겔(ringer), 펄품(perfume), 레포트(report), 쥬스(juice) 등.

12) <표2㉠>은 '제1장, 표기의 원칙'과 '제2장, 표기일람표'에 의거하여 맞지 않는 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는 대중매체의 자정력이 미흡한 상황에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과 맞지 않는 새로운 외래어를 앞으로도 계속 생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학습자가 외래어를 표기에 혼돈을 야기할 만한 요소로 충분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 표기법의 교육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제1장’과 ‘제2장’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대중매체와 연관을 지어 논하였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일정 부분의 혼돈을 야기한다는 점과 외국인 학습자가 외래어를 접하는 학습 경로가 대중매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의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 숙지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학습 지도법을 제안하는 포석이다.

Ⅲ.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오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1.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오류 분석

본고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알파벳 ‘a’의 모음 ‘에’와 ‘에’의 표기의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지도법을 소개한다. 우선, 본고는 오류의 원인을 외래어 표기법상에 존재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법에 초점을 두어 오류를 야기하는 요인을 찾아본다. Ellis Rod(2008)은 제2언어의 오류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환경’, ‘모국어 간섭’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외래어 표기법의 학습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류를 야기하는 요인을 짚어본다.¹³⁾

13) 제2언어의 학습 환경적 요소(장소, 교사, 학습 자료, 학습법 등) 가운데서 외국인

1) 알파벳 'a'의 발음 및 표기법상 오류를 야기하는 기저 요소

본고는 알파벳 'a' 표기에 나타난 모음 '애'와 '에'의 오류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알파벳 'a'의 표기와 관련된 발음과 표기법상에 초점을 두어 오류를 일으킬만한 기저 요소를 살펴본다.

첫째로 알파벳 'a'는 발음에 따라서 '애'와 '에이'로 구분되며 두 가지 모음을 표기법상 혼용한다. 이는 표기법상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표3>은 알파벳 'a'의 '애'와 '에이'에 관한 표기 사례다.

알파벳 'a' → '애'	알파벳 'a' → '에이'
album : 앨범	cake : 케이크
band : 밴드	baseball : 베이스볼
candy : 캔디	cable : 케이블
hand : 핸드	hair : 헤어
scan : 스캔	skate : 스케이트

<표3> 알파벳 'a'의 '애'와 '에이' 표기 사례

둘째는 알파벳 'a'의 표기상의 오류는 알파벳 'e'의 표기상의 혼돈에 의한 것이다. 알파벳 'a'의 '애'와 알파벳 'e'의 '에'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들린다.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서 외래어 표기가 아닌 고유어에서도 모음 '애'와 '에'를 혼돈하여 쓰는 경우를 발견한다.¹⁴⁾ 그런데 Gass(1994)의 오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전자는 오류고 후자는 실수에 해당하므로 분명히 다르다. Brown(2007)의 오류를 식별하는 기준에서도 '명백한(overt)' 오류와 그렇지 않은 오류의 구별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학습자의 학습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미리 밝히며, 이는 4장에서 다룬다.
 14)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조사 '에게'를 '애게'로 오기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 스스로 오기에 대해서 지각하므로 외래어 표기법 오류와는 다른 것이다.

셋째로 외국인 학습자가 알파벳 ‘a’의 오류를 범하는 데에는 외래어 표기법의 일정하지 않은 규칙이 한몫을 한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충분히 논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현용하는 외래어를 살펴보면 규칙에 맞지 않는 외래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상의 일정하지 않은 규칙에 관해서 지적한 부분이다. 이 진희(2009), 김정인(2015), 박영선(2012)에서도 이러한 표기법 상의 일정한 규칙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 오류의 해결방안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외래어 표기법의 학습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외래어 표기 학습 지도법을 소개한다. 이 지도법은 단순히 외래어를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외래어를 표기하는 공통된 규칙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하여 표기하는 방법이다. <표3>에서 확인한 알파벳 ‘a’는 두 개의 모음 ‘에’와 ‘에이’로 나뉜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 일람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는 알파벳 ‘a’의 오류를 줄이는 데에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다. <표4>는 알파벳 ‘a’의 발음에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¹⁵⁾

15) 본고의 알파벳 ‘a’는 로마자표기법 ‘a’와 별개로 구분하며, 실제 알파벳 ‘a’가 갖는 음성기호를 중심으로 한국어 모음의 종류별로 정리하였다.

알파벳 'a'						
음성 기호	[æ]	[ei]	[a]	[ɔ]	[ə]	[i]
관련 어휘	apple	cake	Chicago	talk	American	village
한국어 모음	애	에이	아	오	아	이
외래어 표기	애	에이	아	오	아	이
해당 외래어	애플	케이크	시카고	토크	아메리카	빌리지

〈표4〉 알파벳 'a'의 한국어 모음 종류

알파벳 'a'는 <표4>와 같이 총 6가지 음성 기호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파벳 'a'는 6가지로 발음하고 6가지의 한국어 모음으로 표기한다. 이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모음 '애'와 '에'에 대응하는 [æ]와 [ei]를 살펴본다.¹⁶⁾ 우선,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의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를 (6)에서 정리하였다.¹⁷⁾

(3)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 혼돈의 예

- ㉠ 영어의 어휘 중에서 'a'가 단독형의 단모음 경우
: **a**pple, **a**lbum, **a**sk, **a**nd, **a**camera 등
- ㉡ 영어의 어휘 중에서 'a'가 단독형의 이중모음 경우
: **a**ge, **a**take, **a**shake, **a**fame 등

16) 실제로 알파벳 'a'는 [애]와 [에이]로 발음하고 표기한다. 그런데 이때 [에이]로 발음하는 경우를 [에]로 착각하거나 알파벳 'e'와 혼동하여 표기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알파벳 'a'는 [에] 표기법만 존재한다.

17) 실제 영어교육에서 한글표기를 통한 영어교육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정화(2016) 영어교육에서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황효경(2007), 이규태(2011), 유원호(2015) 등은 영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㉔ 영어의 어휘 중에서 ‘a’외에 알파벳 ‘e’, ‘i’, ‘o’, ‘u’, ‘y’가 결합한 이중모음 경우
:caesar, sail, chaos, laud, play 등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에 혼돈을 주는 경우는 (3㉔) ‘a’가 단독형의 이중모음과 (3㉔)알파벳 ‘a’외에 알파벳 ‘e’, ‘i’, ‘o’, ‘u’, ‘y’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어 외래어 표기의 오류를 유발시키는 데에 ‘애’와 ‘에이’의 모음에서 기인한다. ‘에이’ 모음에 해당하는 ‘a’의 이중모음과 ‘a’ 뒤에 알파벳 ‘i’와 ‘y’가 결합된 ‘ai’ 또는 ‘ay’의 이중모음으로 인해서 ‘애’와 ‘에’ 그리고 ‘에이’와 ‘에이’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사실, (3㉓)과 (3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모음(반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3㉔)의 경우는 ‘에이’와 ‘에이’의 혼돈을 일으켜서 오류를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a’가 단독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연결되는 ‘i’와 ‘y’의 결합하여 소리를 만드는 것으로 인지하면 된다. 즉, 어휘를 구성하는 철자(spelling) 내에서 ‘a’가 단독으로 쓰인 형태인지,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 ‘e’, ‘i’, ‘o’, ‘u’, ‘y’와 결합한 형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4)와 같이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4) 알파벳 ‘a’의 모음 구분 법칙

- ㉓ 영어 어휘에 사용된 알파벳 ‘a’의 발음을 구분한다.
㉔ 영어 어휘를 구성하는 철자 내의 알파벳 ‘a’의 단독형과 ‘e’, ‘i’, ‘o’, ‘u’, ‘y’ 모음의 결합형을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법칙만 숙지한다면 절대로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없다. 다음은 (5)를 통해서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도록 한다.

(5)

- ㉠ **N**avigation → 내비게이션: 첫 번째 'a'가 단독으로 쓰였기에 '애'로 표기하고 뒤에 위치한 'a'는 이중모음 소리가 나므로 '에'로 표기한다.
- ㉡ **D**amage → 대미지: 첫 번째 'a'가 단독으로 쓰였기에 '애'로 표기, 뒤에 위치한 'a'는 모음 [i]소리가 나므로 '이'로 표기한다.
- ㉢ **a**pp → 애플: 'a'가 단독으로 쓰였으므로 '애'로 표기한다.
- ㉣ **a**ccessory → 액세서리: 'a'가 단독으로 쓰였기에 '애'로 표기한다.
- ㉤ Los **a**ngeles → 로스앤젤레스: 'a'가 단독으로 쓰였으므로 '애'로 표기한다.
- ㉥ **c**annon → 캐논: 'a'가 단독으로 쓰였기에 '애'로 표기한다.
- ㉦ **c**addy → 캐디: 'a'가 단독으로 쓰였기에 '애'로 표기한다.

(5)는 (4)에서 제시한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하여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 알파벳 'a'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는 발생할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알파벳 'a'의 두 가지 법칙을 활용한 학습 지도법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 검증을 실시한다.

IV. 검증방법 및 결과 분석

1. 검증방법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의 해결방안의 실효성을 검

중하고자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는 ‘사전테스트(pretest)’와 ‘사후테스트(post-test)’로 2회로 진행한다. 테스트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 및 오류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1) 참여자 정보

본고에서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¹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00명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에 본고의 학습 지도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본고의 테스트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습자의 기본 정보는 <표5>에서 정리하였다.¹⁹⁾

출신 국가	인원	성별		거주 기간	한국어 수준
		남(20명)	여(40명)		
베트남	31명	11명	20명	20개월 이상	중·고급 (토픽4급 /5급)
중국	29명	13명	16명		
러시아	17명	8명	9명		
일본	12명	5명	7명		
미국	8명	2명	6명		
대만	3명	1명	2명		
총 원	100명				

<표5> 사전 테스트 참여자 정보

18)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 학습 지도법을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으로 표기한다.

19) 최대한 다국적 학습자를 통해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 검증방법 구성과 진행방식

(1) 사전테스트

사전테스트의 문제는 총 25개 문항으로 알파벳 'a'가 외래어 표기법인 한국어 모음 '애'로 표기되는 외래어로 구성된다. 테스트 문항은 영어 단어와 음성기호를 함께 제시하여 알맞은 외래어를 고르는 선택형 질문이다. 25개 문항은 외국인 학습자가 많이 접하는 외래어로 구성하고, 테스트의 소요시간은 총 25분으로 제한하여 각 문항 당 1분으로 정한다.

(2) 사후테스트

사후테스트는 본고가 제안한 지도법을 통해서 학습한 후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²⁰⁾ 사후테스트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며 두 집단은 사전테스트 참여자들의 사전테스트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표6>과 같이 나뉜다.

집단 구분	(가)집단	(나)집단
집단 구성 기준	알파벳 'a' 표기 지도법	개인별 학습
출제 정보 제공	없음	제공
인원	50명	50명
총원	100명	

<표6> 집단별 구성 정보

20)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 관련 학습한 후에 일차적으로 사후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집단은 (나)집단에 비해서 월등한 결과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고는 외래어 표기 지도법의 실효성 보다는 외래어 표기법 학습 직후에 나타난 한시적 학습 효과로 보았다. 이러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2020. 4. 27, 사전테스트의 실시 이후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2020. 7. 15, 사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을 통한 학습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을 통해서 연습한 (가)집단은 사전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은 학습자로 구성한다. 또한 (가)집단은 사후테스트에 출제되는 50문항의 출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다. 반면, (나)집단은 사전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습자로 구성하고, 사후테스트에 출제되는 50문항의 외래어를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출제 정보를 제공한다. 배부된 유인물은 (나)집단의 학습자 스스로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한다.²¹⁾

사후테스트의 외래어 표기 관련 문항은 사전테스트와 달리 약간의 변화를 준다. 사후테스트는 알파벳 ‘a’뿐만 아니라 알파벳 ‘e’가 포함된 외래어 표기 문항을 동시에 제시하고 영어 음성기호를 제시하지 않는다. 알파벳 ‘a’의 모음 ‘에’로 표기하는 외래어뿐만 아니라 ‘에이’와 ‘에’로 표기하는 외래어를 혼합한 문항을 제시한다. 또한 문항의 개수는 50문항으로 늘리고 소요시간은 총 25분으로 제한하여 한 문제당 30초의 소요시간을 준다.²²⁾

(3)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에 관한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본다. 사전테스트와 사후테스트

21) (나)집단에만 출제 정보를 제공한 이유는 외래어 학습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며 (가)집단은 외래어 표기법의 명확한 기준만 숙지하고 있다면 출제 정보가 굳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는 본고가 제안한 지도법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에 보다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22) 사후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학습자로 구성된 (가)집단이 사전테스트 보다 문제 수는 두 배로 늘리고, 소요시간은 1/2로 줄임으로써 본 학습방안의 실효성 검증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한 장치다.

를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에 대한 학습 효과와 활용도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외래어 표기 학습법에 관한 어떠한 특징과 오류를 범할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짚어본다.

2. 결과분석

1) 사전 및 사후테스트

본고는 '사전테스트(pretest)'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표7>과 <표8>에서 정리하였다.²³⁾ <표7>은 사전테스트의 결과를 점수별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집단 구분	점수	(가)집단	(나)집단
점수별 인원	44	15명	-
	52	8명	-
	56	11명	-
	60	16명	7명
	64	-	19명
	68	-	11명
	72	-	13명
소계		50명	50명
총원		100명	

<표7> 사전테스트(pretest) 점수별 인원

본고는 사전테스트와 사후테스트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가)집단과 (나)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가)집단은 사전테스트의 결과가 낮은 집단, (나)집단은 결과가 높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8>은 두 집단을 구성하

23) SPSS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평균 값(n)은 소수점 자리의 수를 버린(round-down) 값(n)이다.

는 기준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테스트의 60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하와 60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²⁴⁾ 사전테스트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가)집단은 53점이고 (나)집단은 66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분	(가)집단	(나)집단
점수분포	44 ~ 60	60 ~ 72
총점	2,652	3,320
평균값(n)	53점	66점
인원	50명	50명
전체 평균값(n)	59점	
총원	100명	

〈표8〉 '사전테스트(pretest)'의 두 집단 간 점수 비교

다음은 '사후테스트(posttest)'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집단 구분	점수	(가)집단	점수	(나)집단
점수별 인원	86	5명	60	6명
	90	11명	68	8명
	92	15명	78	12명
	94	14명	80	14명
	96	5명	82	10명
소계	50명		50명	
총원	100명			

〈표9〉 사후테스트(posttest) 점수별 인원

<표9>와 <표10>는 알파벳 'a' 표기 학습 지도법을 통해서 학습한 (가)

24) '사전테스트(pretest)'에서 60점을 획득한 학습자는 18명이다. 본고는 각 집단별로 임의대로 (가)집단은 16명, (나)집단은 7명으로 나누었다. 이는 집단을 구성하는데 점수대별로 동일한 학습자 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평균값에 가까운 60점대에 가장 많은 학습자가 분포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보다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집단과 사후테스트 출제 정보를 통해서 개인별로 학습한 (나)집단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우선, <표9>는 두 집단 간에 점수별 참여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표9>에서 (가)집단은 (나)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가)집단의 최저 점수대가 (나)집단의 최고 점수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10>에서 두 집단 간에 평균값(n)을 비교하면 (가)집단은 91점, (나)집단은 75점으로 15점의 평균값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집단의 경우에 사전테스트와 사후테스트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사전테스트 53점과 사후테스트 91점으로 약 50점에 가까운 평균값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구분	(가)집단	(나)집단
점수분포	86 ~ 92	60 ~ 82
총점	4,596	3,780
평균값(n)	91점	75점
인원	50명	50명
전체 평균값(n)	83점	
총원	100명	

<표10> '사후테스트(posttest)'의 두 집단 간 점수 비교

이처럼 '사후테스트'의 결과에 한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알파벳 'a'의 외래어 표기법을 학습하는 데에,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지도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설문조사

본고가 제안한 알파벳 'a' 표기 학습 지도법에 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의견을 <표11>에서 정리하였다. <표11>은 설문조사 25문항 가운데서 본 연

구를 실시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3가지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외국인 학습자가 외래어를 접하는 경로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대중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택한 항목에는 ‘TV 버라이어티쇼’가 7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 학습법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대중매체’에 관련된 답변이 6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외래어 표기법 학습이 아닌 의미를 학습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제안한 학습 지도법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83명의 학습자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설문 문항	답 변		
	순위	선택 항목	인원
외래어 접하는 방법	1	TV버라이어티쇼	73명
	2	드라마	20명
	3	영화	7명
외래어 표기법 학습법	1	대중매체	62명
	2	외래어 의미 학습	35명
	3	없다	3명
외래어 표기 학습 지도법 실효성	1	그렇다	83명
	2	모른다	17명

〈표11〉 설문조사 결과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외래어를 받아들인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는 외래어 표기법 보다는 외래어 의미에 집중한다. 셋째, 본고의 외래어 학습 지도 방안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서 입증하였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학습 욕구를 확인하였다.²⁵⁾ 이를 통해서

25)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표기 학습의 필요성(89명)과 학습 욕구

한국어 교육 현장에 외래어 표기법 학습에 관한 고찰과 동시에 중창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알파벳 'a'의 모음 '애' 표기법에 관한 학습 지도법을 제안하였다. '영어 어휘의 알파벳 'a'의 발음을 중심으로 한 알파벳 'a'의 단독형과 결합형'으로 구분한다. 단독형인 경우에는 모음 '애', 결합형은 모음 '에이'로 표기한다. 이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제2장, 일람표'에 없는 것으로 본고가 제안하는 학습 지도법이다. 이에 본 외래어 학습 지도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고가 제안한 학습 지도법의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현,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일정하지 않는 외래어 표기법 사례와 그로 인해서 외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본고가 제안한 학습 지도법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도 확인하였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외래어를 받아들인다. 둘째, 기존의 외래어 학습은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의미 학습에 치중한다. 셋째, 외래어 표기법의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본고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 표기법의 학습의 필요성과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학습 지도법을 고안 및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92명)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무림, 「어원탐구 감자와 고구마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9권 제3집, 국립국어원, 2009.
- 김세용, 「대중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1-96.
- 김정인, 「외래어 표기법 문제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p.1-121.
- 박영선,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및 지도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p.184.
- 유원호, 『한글로 쉽게 푸는 미국식 영어발음 설명서』, 서울, 2011
- 이규태, 「영어발음의 한글발음표기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발음지도 연구 :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p.1-67.
- 이정화, 「한국어 표기를 활용한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 수준별 학습자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1-110.
- 이진희, 「외래자소 목록의 작성 관점에서 국어와 독일어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화 문제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2009.
- 허윤희, 「외래어 표기의 실태 분석 연구: 외래어 표기법의 영어 표기 세칙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p.1-76.
- 황효경, 「한글표기를 통한 영어발음 교수효과」, 경남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p.1-188.
- Brown,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 Hall, c 1987.
- Ellis Rod, Oxford Introduction to Language Study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Express. 2008.
- Susan M. Gass, Selinker Larry,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Foreign Learners'
“Loan-word Orthography”
- Focus on the Orthography of Alphabet 'a'

Kim, Seo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es of errors related to Korea's loanword orthography for foreign learners who lear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nd proposes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orthography of the alphabet 'a', in which foreign learners commit extraordinary errors in the foreign orthography. The loan-word orthography of Korea is the most common in the case of inflow from English. In particular, most of the sports, fashion, and automobile-related jargon are English-based loan-words. This is a loan-word commonly encountered in real life, but foreign learners commit errors that do not fit the foreign language orthography. This phenomenon must consider the principle of loanword orthography, the inconsistent complexity of exception clauses, and the correlation of foreign learners' learning methods in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foreign learners committing a number of errors in the orthography in the alphabet 'a', and proposes learning guidance methods accordingly.

Key Words : second language, foreign learners, orthography, errors, Alphabet 'a'

김 성 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강사

전자우편: sseille14@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8월 17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5일 게재 확정됨.

부 록 - 사전테스트지(pretest) / 사후테스트지(posttest)

사전 테스트

【실문지】

◆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미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테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래어의 표기법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함이며, 정확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문항이 배제되었습니다. 혹시나 본 설문지에 있어서 오타나 실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or@au.se.kr / tel:to: 02-010-9008-9001)

2020년 4월 27일

연구자: 권 선 복

1.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기본 정보에 대해 기입하여 주시고 해당하는 곳에 < > 로 표시하십시오.

1. 국문
 2. 성명 ○ 남 ○ 여
 3. 연령 ○ 18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4. 한국어 수준 ○ 초급 ○ 중급 ○ 고급
 나. 국문 ○ 초급 ○ 중급 ○ 고급
 6. 한국어 학습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 본 테스트는 여러분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외래어를 선택하여 주세요.

- | | |
|--|---|
| <p>1. accessory [akso:ri] (1) 액세서리 (2) 액세서리 (3) 하세서리 (4) 하세서리</p> <p>2. magic [ma:dʒik] (1) 마직 (2) 매직</p> <p>3. latest [le:st] (1) 렉스트 (2) 렉스트 (3) 렉스트 (4) 렉스트</p> <p>4. navigation [navi:geiʃən] (1) 내비게이션 (2) 내비게이션 (3) 내비게이션 (4) 내비게이션</p> <p>5. damage [dʒa:mdʒ] (1) 댈미지 (2) 댈미지</p> <p>6. Negative [ne:gəti:v] (1) 네가티브 (2) 네가티브</p> <p>7. San Antonio [sæn anto:niəʊ] (1) 샌안토니오 (2) 샌안토니오</p> <p>8. San Francisco [sæn fræŋsɪs'koʊ] (1) 샌프란시스코 (2) 샌프란시스코</p> <p>9. nail art [ne:il a:t] (1) 네일 아트 (2) 네일 아트</p> <p>10. cake [ke:k] (1) 케이크 (2) 케이크</p> <p>11. lamp [læmp] (1) 램프 (2) 램프</p> <p>12. train [tre:n] (1) 트레인 (2) 트레인</p> <p>13. flash [flæʃ] (1) 플래시 (2) 플래시 (3) 플래시 (4) 플래시)</p> | <p>14. lantern [læntən] (1) 램프 (2) 램프</p> <p>15. cabinet [kæbɪnət] (1) 캐비닛 (2) 캐비닛</p> <p>16. random [rændəm] (1) 랜덤 (2) 랜덤</p> <p>17. sandwich [sændwɪtʃ] (1) 샌드위치 (2) 샌드위치</p> <p>18. car center [kɑ: sɛntə] (1) 카센터 (2) 카센터 (3) 카센터 (4) 카센터</p> <p>19. Caribbean [kæri:bi:n] (1) 캐리비안 (2) 캐리비안</p> <p>20. balance [bæləns] (1) 밸런스 (2) 밸런스 (3) 밸런스 (4) 밸런스)</p> <p>21. jammin [dʒæmɪn] (1) 잼민 (2) 잼민</p> <p>22. saxophone [sæksə'foʊn] (1) 색소폰 (2) 색소폰 (3) 색소폰 (4) 색소폰)</p> <p>23. card [kɑ:d] (1) 카드 (2) 카드</p> <p>24. adult [ædʌlt] (1) 애드ultz (2) 애드ultz)</p> <p>25. swim [swɪm] (1) 스윙 (2) 스윙)</p> |
|--|---|
- 수, 고, 하, 엇, 습, 니, 다.

사후 테스트

【외래어 표기법 테스트】

◆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외래어를 선택하여 주세요.

문항	영어 어휘	선택할 문항 보기	26	best	○ 베스트 (3) 베스트
1	Sandwich	○ 샌드위치 (2) 샌드위치 (3) 샌드위치 (4) 샌드위치	27	baby	○ 베이비 (2) 베이비 (3) 베이비 (4) 베이비
2	Scale	○ 스케일 (2) 스케일 (3) 스케일 (4) 스케일	28	Negative	○ 네가티브 (2) 네가티브 (3) 네가티브 (4) 네가티브
3	Fuc	○ 푸스 (2) 푸스 (3) 푸스 (4) 푸스	29	Navigation	○ 내비게이션 (2) 내비게이션 (3) 내비게이션 (4) 내비게이션
4	Menu	○ 메뉴 (2) 메뉴 (3) 메뉴 (4) 메뉴	30	Stard	○ 스타드 (2) 스타드 (3) 스타드 (4) 스타드)
5	Tennis	○ 테니스 (2) 테니스 (3) 테니스 (4) 테니스	31	Make	○ 메이크 (2) 메이크 (3) 메이크 (4) 메이크)
6	Mechil	○ 메칠 (2) 메칠 (3) 메칠 (4) 메칠	32	Pass	○ 패스 (2) 패스 (3) 패스 (4) 패스)
7	Modley	○ 모들리 (2) 모들리 (3) 모들리 (4) 모들리	33	Pace	○ 페이스 (2) 페이스 (3) 페이스 (4) 페이스)
8	Fastfood	○ 패스트푸드 (2) 패스트푸드 (3) 패스트푸드 (4) 패스트푸드	34	Caopus	○ 카포스 (2) 카포스 (3) 카포스 (4) 카포스)
9	Best	○ 베스트 (2) 베스트 (3) 베스트 (4) 베스트	35	Comp	○ 컴프 (2) 컴프 (3) 컴프 (4) 컴프)
10	Head	○ 헤드 (2) 헤드 (3) 헤드 (4) 헤드)	36	Stap	○ 스태프 (2) 스태프 (3) 스태프 (4) 스태프)
11	Handcut	○ 핸드컷 (2) 핸드컷 (3) 핸드컷 (4) 핸드컷	37	Save	○ 세브 (2) 세브 (3) 세브 (4) 세브)
12	Handing	○ 핸드링 (2) 핸드링 (3) 핸드링 (4) 핸드링	38	Battle	○ 배틀 (2) 배틀 (3) 배틀 (4) 배틀)
13	Staff	○ 스태프 (2) 스태프 (3) 스태프 (4) 스태프)	39	Terror	○ 테러 (2) 테러 (3) 테러 (4) 테러)
14	Step	○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40	Fashion	○ 패션 (2) 패션 (3) 패션 (4) 패션)
15	Stage	○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	41	Pension	○ 펜션 (2) 펜션 (3) 펜션 (4) 펜션)
16	Let t	○ 레트 (2) 레트 (3) 레트 (4) 레트)	42	App	○ 앱 (2) 앱 (3) 앱 (4) 앱)
17	Race	○ 레이스 (2) 레이스 (3) 레이스 (4) 레이스)	43	Put	○ 푸트 (2) 푸트 (3) 푸트 (4) 푸트)
18	Anchor	○ 앵커 (2) 앵커 (3) 앵커 (4) 앵커)	44	Pack	○ 팩 (2) 팩 (3) 팩 (4) 팩)
19	Page	○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45	Trait	○ 트리트 (2) 트리트 (3) 트리트 (4) 트리트)
20	Center	○ 센터 (2) 센터 (3) 센터 (4) 센터)	46	Track	○ 트랙 (2) 트랙 (3) 트랙 (4) 트랙)
21	Acn	○ 액스 (2) 액스 (3) 액스 (4) 액스)	47	Branch	○ 브랜치 (2) 브랜치 (3) 브랜치 (4) 브랜치)
22	Tempo	○ 템포 (2) 템포 (3) 템포 (4) 템포)	48	Band	○ 밴드 (2) 밴드 (3) 밴드 (4) 밴드)
23	Rad	○ 레드 (2) 레드 (3) 레드 (4) 레드)	49	Strack	○ 스트랙 (2) 스트랙 (3) 스트랙 (4) 스트랙)
24	Lady	○ 레이디 (2) 레이디 (3) 레이디 (4) 레이디)	50	Break	○ 브레이크 (2) 브레이크 (3) 브레이크 (4) 브레이크)
25	Roady	○ 로디 (2) 로디 (3) 로디 (4) 로디)			수, 고, 하, 엇, 습, 니, 다.

본 설문지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설문지에 후 문항은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차례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아랍계 과실에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호시나 본 설문지에 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sh@nu.ac.kr / mobile: 82-010-9606-9001)

2020년 06월 15일
연구자: 김성환

□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기본 정보에 대해 기입하여 주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국적 ()
2. 성별 ()
3. 연령 ()
4. 한국어 수준 및 학습 기관 ()
5. 한국어 학습에 사용한 한국어 교재 ()

□ 지금까지 질문 중항을 읽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표 해 주십시오.

1. 당신은 평소에도 한국어 외래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 당신은 평소에도 한국어 외래어를 주로 접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어 교재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pop TV 쇼프로그램
 친구 선생님 기타
3. 당신은 평소에도 한국어 외래어 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4. 당신은 평소에도 한국어 외래어 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5. 당신은 평소에도 한국어 외래어 표기를 할 때에 실수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6.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외래어 공부에 한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7.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외래어 표기 방법에 관해서 학습한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8.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 한국어 외래어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적이 있었다.
 있다. 없다. 모른다.
9.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때에 혼동하거나 헷갈린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10.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 한국어 외래어 표기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른다.
11.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한국어 외래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12. 한국어 표기를 할 때에 외래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13. 한국어 외래어를 쓸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규칙이 있다.
 있다. 없다. 모른다.
14.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을 통해서 외래어를 쓰는 규칙을 알게 되었다.
 알았다. 모른다.
15.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을 통해서 외래어를 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16.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이 너무 복잡하다 생각한다. → 간단하다 복잡하다 →
 1 2 3 4 5 6 7 8 9 10
17.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입양했 'ㅅ'의 모음 표기는 상하지 않았다.
 침소하지 않는다. 침소한다. 모른다.

18.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을 통해서 외래어를 모은 '애' 와 '애' 를 구분하는 것이 쉽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19. 앞으로라도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을 통해서 외래어를 모은 '애' 와 '애' 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0.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을 통해서 외래어를 모은 '애' 와 '애' 를 구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1. 1차 테스트 보다 2차 테스트에서 입양했 'ㅅ'의 모음 '애' 와 '애' 를 구분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2. 1차 테스트 보다 2차 테스트의 외래어 문제가 더 쉽다.
 그렇다. 아니다. 똑같다. 모른다.
23.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을 주위 친구에게 소개하였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4.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이 주위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5.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학습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 진심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